

은행 노는건물 · 폐쇄점포 임대 가능해진다

개정된 은행법으로 '집주인' 은행들 늘어날 전망

세 줄수 있는 범위 영업점 사용면적의 9배 이상도 가능

전월세 받는 '집주인' 은행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규제 완화로 은행들은 노는 부동산이나 폐쇄된 점포에도 세를 놓을 수 있게 됐다.

14일 개정된 은행법과 하위 법령 등에 따르면 앞으로 은행들은 점포 규모를 줄이고 남은 면적을 임대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은행들이 세를 줄 수 있는 범위가 영업점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의 9배를 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점포의 자율적으로 규모를 조정하고 이외 공간은 임대할 수 있게 됐다

늘고 있는 은행 소유의 부동산도 임대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은행이 폐쇄된 점포나 비업무용 부동산에 세를 놓을 수 없었고 1년 내 처분해야만 했다

하지만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처음 기한이 3년까지 유예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소유 부동산에 더 잡아 임대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은행들은 금융환경 변화로 최근 빈 점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은행의 국내 점포수는 지난 2013년 말 기준 7599개에서 2014년 말 7401개로, 지난해 말에는 7278개

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는 온라인·모바일에서 주된 거래가 이뤄지는 금융 환경 변화에도 크게 함께 한다. 비대면 거래가 늘고 창구를 찾는 일이 줄어들면서 인출금 또는 조회 서비스 등의 인터넷뱅킹 이용 비중이 80%에 육박하고 있다.

은행들이 부동산 임대를 할 수 있는 점포 면적은 지난 2014년 말까지 절반 정도였지만 이 같은 시대적 흐름 속에 이용 면적의 9배까지 늘어났다. 하지만 최근 비대면 인출, 계좌 개설 등 전통적으로 사람이 해야 한다고 여겨졌던 부분까지 창구 밖에서 이뤄지면서 이번엔 부동산 임대 제한이 사실상 풀린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은행이 점포를 자가 운영하는 비중이 20~30% 임대 운용은 70~80% 수준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제도가 변경되면 은행들이 자가 건물을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낡은 건물인 경우에는 증축 또는 개축을 해서 임대 면적을 늘리고 공간을 임대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은행들도 임대를 통한 신규 수익원이 생긴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은행들은 지난해 순이자 마진이 점차 감소하면서 적자 폭이 늘었다. 또 올해 대규모 기업 구조조정이 예상되고, 자본 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돼 있어 은행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행들은 지난해 순이자 마진이 점차 감소하면서 적자 폭이 늘었다.

또 올해 대규모 기업 구조조정이 예상되고, 자본 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돼 있어 은행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이 밝힌 지난해 국내 은행의 이자 이익은 33조5000억원으로 기존 금리인하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조4000억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신사업을 모색하던 은행들은 부동산 세입이라는 추가 수익을 확보, 부담을 일정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비업무용 부동산 임대도 할 수 있게 되면서 기존에 없었던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그렇게 작은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보탬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인진수기자



벚꽃 아래 신입승무원들

최근 아시아나항공 신입 캐빈승무원들이 벚꽃이 만개한 서울 강서구 아시아나타운 본사를 거닐며 싱그러운 봄내음을 만끽하고 있다. 이들 신입 승무원들은 3개월에 걸친 서비스 교육과 안전훈련을 이수하고, 5월 초 실제 비행에 투입될 예정이다.

창업 3년이하 벤처기업 급감

2년새 27%→13%로

국내 벤처기업 가운데 창업 초기 단계에서 폐업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어 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4일 '벤처활성화 지원 정책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국벤처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벤처기업 수는 2006년 1만2218개에서 올해 2월 3만1204개로 늘었다.

국내 벤처기업의 투자 규모 역시 2006년 4조9000억원에서 지난해말 14조1000억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창업 3년 이내 벤처기업 비중은 급감하고 있다.

국내 벤처기업 중 창업 3년 이하의 비중은 2012년 27.1%에서 2014년 13.4%로 크게 줄었다. 창업 후 단기간 내에 폐업하는 기업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 같은 현상을 창

업 준비·초기 단계(Pre-seed stage)에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현재 국내에는 창업 초기 자금을 지원하는 엔젤투자와 투자자의 수가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적다.

한국의 엔젤투자 규모는 2014년 기준 미국의 0.5%, 투자자는 3% 수준에 불과하다. 벤처기업 중 엔젤투자를 받은 경험에 있는 기업도 전체의 1.8% 밖에 되지 않는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벤처투자자금 비중도 2014년 기준 0.06%(약 1조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

조호정 현대경제연구원 동북아연구실 연구위원은 "국내 창업·벤처 투자자금은 빠르게 확충되고 있지만 미국, 이스라엘 등에 비해서는 규모가 여전히 작다"며 "기업들이 창업 초기 단계인 '죽음의 계곡'을 극복하려면 정부의 모태펀드 등을 통한 지원 확대뿐만 아니라 신규 투자자금 원천이 꾸준히 발굴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진수기자

총선날 트위터글 150만건 오가...

총선 당일 트위터글이 150만건 넘게 오간 것으로 나타났다.

트위터코리아는 13일부터 14일 오전9시 현재까지 투표, '선거', '새누리', '더민주' 등 선거 관련 키워드가 150만건 이상 발생했다고 밝혔다.

분당 트위터가 가장 많았던 시간은 투표가 종료된 13일 오후 7시30분으로 분당 1200건의 투표 관련 트윗이 발생했다. 이 시간은 기존 여론조사 결과를 뒤집고 더불어민주당의 우세가 발표된 직후다.

'투표'라는 키워드를 포함한 트윗이 가장 많았던 시간은 13일 오후2시부터 오후3시 사이였다. 한 시간동안 6만15000건의 트윗이 발생했다. 당별로는 '새누리당' 언급이 10만4000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민의당 6만2000건, 더불어민주당 3만4000건, 정의당 3만18000건 등의 순이었다.

전원직 당 대표들 중에서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만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안철수 대표가 5만2000건, 김중권 대표 5만1000건, 김무성 대표 3만4000건, 순이었다.

/인진수기자

신한 모바일신용카드 최다이용

신한카드의 모바일 카드 누적 발급 매수가 1000만매를 넘어섰다고 14일 밝혔다.

단일 카드사 기준으로 모바일 카드가 누적 1000만장 넘게 발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한카드의 모바일 카드 누적 발급 매수는 지난 12일 기준 1063만매로 최종 집계됐다.

모바일 카드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연령대는 30대로 전체 32%에 이른다. 20대 비중은 28%로, 모바일 카드 이용자의 60%가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카드 발급과 함께 결제 규모도 늘어나고 있다. 신한카드의 모바일 카드 이용 금액은 지난 2013년 3300억원에서 2014년 2조5000억원, 지난해에는 3조8000억원까지 증가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전체 전자상거래에서 모바일 결제 비중이 3월 말 기준 62%에 달하고 있다"며 "모바일 카드 이용액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연간 이용액이 5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진수기자

BMW, 국내 수입차시장 영업이익 1위

지난해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가장 많은 이익을 올린 업체는 BMW로 나타났다.

벤츠는 3조원을 웃도는 매출로 1위를 기록했지만 영업이익은 1112억원으로 BMW(2352억원)의 절반에 불과했다.

14일 수입차 업체들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지난해 3조415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전년(2조2045억원)보다 1조원 가까이 매출이 늘어난 셈이다.

영업이익은 112억원으로 전년(1222억원)보다 줄어 들었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887억원이었다.

벤츠는 지난해 588억원의 배당금을 주주인 독일의 다임러 AG(지분 51%), 스타오토홀딩스(지분 49%)에 지급했다. 배당 비율은 68%로 전년(50%)보다 늘어났다. 이익은 줄었지만 배당은 확대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관계자는 영업이익 감소에 대해 "전년 대비 E클래스, S클래스 등 중대형 모델들의 판매가 늘어남에 따라 수입 원가도 함께 증가한 것을 하나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며 "AMG 등 고성능 모델과 메르세데스-마이바흐와 같은 첨단 사양 모델들의 판매 증대로 요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BMW코리아는 지난해 2352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이는 2014년(571억원)보다 4배나 늘어난 것이다.

당기순이익도 463억원으로 전년(201억원)보다 증가했다. 매출액은 2014년 2조2000억원보다 늘어난 2조8757억원을 기록했다. BMW는 지난해 배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BMW코리아 관계자는 "지난해 판매실적이 좋았던 데다 환율 등의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양호한 실적을 거둔 것 같다"고 말했다.

BMW는 지난해 4만7877대를 판매하면서 수입차 시장 판매량에서 선두 자리를 지켰다. 벤츠는 4만6994대를 팔아 2위였다.

지난해 디젤 배출가스 조작 파문으로 곤욕을 치른 아우디 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해 매출액이 2조5818억원으로 2014년(2조3819억원)보다 다소 늘었다.

반면 영업이익은 472억원으로 전년(546억원)보다 감소했다. 당기순이익도 322억원으로 전년(407억원)에 비해 줄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80억원을 배당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영업이익의 경우 절대금액으로는 지난해보다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비중을 보면 비슷한 수준"이라며 "배당은 이사회 결의사항에 따라 집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진수기자

한국타이어, 민간 사회주택사업운영 MOU 체결

한국타이어는 사단법인 나눔과미래, 법무법인 태평양, 재단법인 동천과 사회적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하는 '동그라미 사회주택사업'의 운영·관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동그라미 사회주택사업은 국내 최초의 민간기금 기반 사회주택사업이다. 청년, 고령자, 장애인, 그리고 다자녀가구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부담 가능한 임대료 수준의 사회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사회주택 공급자들에게 사업비를 대여하고 이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순환기금을 운영한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한국타이어나눔재단은 30억원의 기금을 출연한다. 나눔과미래는 동그라미 사회주택기금을 운영하며 태평양과 동천은 운영에 필요한 법률자문을 맡는 등 한국타이어나눔재단과 협력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동그라미 사회주택기금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연간 동그라미하우스 20여세대 공급에 활용될 예정이다.

/인진수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7)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vsc.or.kr *전자우편 : jvsc@hanmail.net

